



湖南新聞



1946년 3월 창간 제 2498호

이메일 : ihonam@naver.com

홈페이지

NAVER

호남신문

검색

2018년 5월 9일 (음력 3월 24일) 수요일

광주·전남 광역·기초단체장 여성후보가 없다

광주전멸·전남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 유일

“30% 추천률 적용·성평등 의식 검증 강화 필요”

6·13지방선거에서도 광주·전남 여성정
치인들의 자치단체장 진입 장벽은 높기만

하다. 컷오프와 경선에서 출몰이 고배를 마
서 여성 단체장 무풍지대를 예고했다.

8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6월13
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
주에서는 4명, 전남에서는 2명의 여성 후보
가 광역·기초단체장에 도전장을 냈으나
대부분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.

광주의 경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
위원이 ‘전국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’을 목
표로 광주시장에 도전했으나 본경선에서
탈락했고, 동구 양혜령 후보와 광산구 윤난
실 후보도 컷오프를 통과해 본경선에 나섰
으나 각각 2, 3위로 고배를 마셔 본선 진출
에 실패했다. 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
김금림 후보는 광주시장 검증에서 컷오프
됐다.

전남에서는 민주당 김유화 후보가 여수
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, 당내 경선에서 권
리당원·일반 시민 ARS 투표 합산 득표를
19.93%로 경찰서장 출신 권세도(50.19%),
현지 시장인 주철현(38.92%)에게 밀려 고
배를 마셨다.

남은 후보는 민주평화당 영암군수 후보
인 박소영 전 목포부시장 직무대리가 유일
무이다. 박 후보 역시 현지 군수와의 맞

대결이 불가피해 선거 결과를 장담하기 어
려운 상황이다.

4년 전 선거에서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
입후보자는 각각 7명과 3명이었지만 모두
남성이었고, 기초단체장의 경우 5개구 후보
자 16명 중 여성은 2명이었지만 당선자는
없었다. 전남은 22개 시·군 입후보자 80명
중 여성은 1명이 본선에 나섰지만 당선자
는 인연이 없었다.

광주에서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
모두 5명(송인중, 고재유, 박광태, 강운태,
윤장현)의 시장과 20명이 구청장을 배출했
으나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.

전남에서는 도지사 4명(허경만, 박태영,
박준영, 이낙연)과 80여명의 시장·군수가
기초단체장으로 재임했으나 여성은 이영남
화순군수와 이청 정성군수 등 2명이 군수
직을 수행했다. 공교롭게도 두 여성군수 모
두 남편이 현행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
한 뒤 비통을 이어받았다.

지역 정가 관계자는 “이무래도 지방정치
구조가 남성 독과점 형태인 데다 여성 후
보들의 경우 지지층을 세력화하고 체계적
으로 관리하는데 일정 정도 한계를 보이는
경우가 많아서 진입장벽을 허무는데 어려
움이 많다”며 “30% 추천률 적용과 성평등
의식에 대한 검증 강화 등이 필요하다”고
말했다.

신봉우 기자



죽녹원 담양대나무축제 즐겨요 지난 7일 오후 담양 죽녹원 및 관방재림 일원에서 열리
고 있는 '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'를 찾은 관광객들이 죽
녹원을 방문, 연휴 마지막날을 즐기고 있다.

“농작업 90%이상女...안전 조례 제정해야”

광주전남 여성농민회 제도화 촉구...道 “다각적 방안 강구”

최근 발일을 마치고 귀가중 교통사고를
당해 8명의 노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, 광
주·전남지역 여성농민회가 농작업 전반에
대한 안전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
을 제기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
다.

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광주전남 여성
농민 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“언제 또
다시 터질지 모르는 여성농민들의 농작업
전반에 걸친 안전 대책을 위해 조례를 제
정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여성농민회는 “연 소득 1000만원 미만인
농가가 70% 이상이다. 농촌의 고령화에도
불구하고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특별한
수입이 없다 보니 70세 이상, 80세 까지도
일을 나가는 실정 이다면서 “더구나 농
작업 인구의 90% 이상이 여성농민이나 농

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은 없는 현실이다”
며 이같이 밝혔다.

조례에는 농작업 안전과 더불어 ▲농작
업 이동차량에 관한 사항 ▲농작업 재해에
관한 사항 ▲사고 이후 처리부분 ▲급박한
생계 부분까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
장이다.

여성농민회는 “환경생 농사짓고도 건강
하지 못한 몸을 유지하면서 고령의 나이에
새벽부터 농작업을 다니는 여성농민을 생
각해 보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”고
강조했다.

이외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“여성농민회
가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
례제정 여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
다”고 말했다.

김정환 기자



약진

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주 ‘오는 6.13지방선거
에서 정의당의 목표는지우한국당을 이기는 것’이
라고 밝혔다.

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와 전국 현안과
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‘이번 선거에서 두자릿
수 정당지지율로 제1야당의 위상을 저지할 것’이
라며 이같이 강조했다.

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‘제1야당이 한국당은
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’ 우당평화쇼 라는 주장
을 굽히지 않고 있다’며 ‘계속 골방에 갇혀 냉전적
사고를 고집한다면 결과는 도대체’라고 비판했
다.

그는 ‘정의당이 정당 지지율에 있어 지금 한국당의
지지율을 추격하고 있다’며 ‘이를 통해 촛불개혁
의 선두에 있는 정당인 정의당이 제1야당의 정치
적 지위를 확보하겠다’고 설명했다.
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.

신봉우 · 자료사진=뉴시스



이정미



홍준표



이정미

The 19th
2018 Jangseong
Hong Gildong
Festival

기간 2018.5.18(금) ~ 5.20(일)
장소 황룡강변(공설운동장) / 홍길동 테마파크

KBS 전국노래자랑 5.19(토) 오후 1시 본선 녹화

제19회 전남 장성 홍길동 축제

황룡강 봄꽃 상춘객 맞이
5.18 ~ 27(10일간)

주최 Jangseong
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
후원 전남남도
한국관광공사
한국지역진흥재단